

증식하는 생명자본의 종교적 양식 - 스마트팜과 디지털 육종 산업을 중심으로

I.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각지의 농촌에서 ‘스마트팜’이라는 유령이 출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팜을 선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을 제정하였다. ‘농업의 첨단 산업화’라는 비전과 함께 스마트팜의 확산이 국가의 정책적 과제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총 4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남윤철, 2026). 스마트팜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일종의 기존 농축산업의 대안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는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찾아줄 ‘신성장 동력’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진 ‘식량 안보’에 대한 대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팜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모색 중인 ‘기후스마트농업’의 일부로 분류한 바 있다(임영아 외, 2017). 한편 스마트팜의 도입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의성군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 50명에 달했던 1기 모집인원이 7기에는 11명으로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하여 정착한 농업인은 2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마저도 높은 초기 비용과 대출의 부담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부채를 안기기도 하고 있다.¹

이러한 부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이라는 일종의 상징은 현대 농촌과 농업의 역사적 전개에 있어 일종의 결절점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주의와 애니미즘 사이의 융합에 대해 논한 음벰베의 말을 빌리자면, “경제의 자연적 환경은 이제 프로세서와 생물학적, 인공적 유기체의 세계이다. 그것은 화면들의 천체적 우주이며, 유동적인 미끄러짐과 빛남, 방사의 세계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와 자동화된 연산의 세계이며, 또한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미세화되는 도구로 작업하는 세계이기도 하다(음벰베, 2025[2018]: 285).” 현대적 농업의 기원에 토지의 인클로저와 탈농민화의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음을 상기해보자면,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과 녹색혁명과 농기계의 보급과 더불어 농사는 분명한 산업의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산업화된 농업에서도 여전히 농부는 작물의 성장과 계절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신경을 놓쳐서는 안 되었고, 이는 곧 부분적이거나 ‘자연’의 운행과 신체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스마트팜과 ‘첨단 농업’의 출현으로 인해 농사에 관한 리듬을 인간-기계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농민들로 하여금 ‘자연’ 혹은 세계를 인식하거나 거주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²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스마트팜이나 디지털 육종과 같은 ‘스마트 농업 기술’의 출현이 인간의 ‘농경’이라는 집단적 행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탐색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아설 음벰베가 제기한 ‘자본주의와 애니미즘의 결합’이라는 정신 세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민족지적 탐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탐구는

¹ 2026,8,2, [긴급 진단] 스마트팜의 현주소...“빛에 무너지는 경북 청년”, 대구일보.

² 스마트팜 농업인들의 ‘부에 대한’ 욕망에 대한 기술과 디지털 식물 육종 체계에 대한 서술 추가 필요

인류세의 국면 속에서 인간에게 ‘자연’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적 관계맺음이 가능할지에 대해 유효한 성찰 지점이 되어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스마트 농업 기술의 도입은 농업인들이 작물·토지·계절·노동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둘째, 스마트팜 창업 농업인, 디지털 육종 연구자,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스마트팜 경영인은 생명과 생산, 위험과 미래를 어떠한 언어와 신념 체계 속에서 이해하는가? 셋째, 이러한 변화는 농경 행위에서 경제와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한 사회의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내부의 (종교적이라 부를 수 있는)관념체계³를 함께 사유해 온 몇 명의 이론가들이 있다. 먼저, 조르주 바타유는 경제가 무한히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음을 일찍이 간파한 이론가이다. 그는 한 사회의 성장은 반드시 멈추게 되며, 그 이후에는 과잉된 에너지를 ‘소진/소모’하게 된다고 말한다. 전쟁의 전제로서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음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바타유는 아즈텍인들의 희생제나 멜라네시아 군도의 포틀라치 등의 상황들을 검토하며 축적된 부를 소모할 때 종교 혹은 신앙 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바타유, 2022[1976]). (바타유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보장하려 한다.)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은 『돈의 철학』(1978)에서 화폐라는 사물이 부채에서 창출되며 채권과 채무의 의무를 동시에 지닌 믿음의 산물이라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화폐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⁴ 짐멜과 막스 베버의 논의를 이어 멜린다 쿠퍼는 ‘거듭남’ 교리에 기반을 둔 미국적 복음주의가 “자아의 즉각적인 개종과 가치의 금융적 변형이 정서적인 등가물(287)”이라면서 “미국 제국주의가 끊임없이 갱신되는 부채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이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생명의 생산과 재생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념과 자본주의의 부채 경제 사이의 연관성을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쿠퍼는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주의적 망상을 생명의 한계와 가능한 미래에 대한 생물학의 이론이 떠받들고 있다고 말한다(쿠퍼, 2016[2008]).⁵

아실 음베크는 자본주의가 애니미즘적 종교의 방식의 제도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한때 ‘네그르’에만 해당되었던 노예적 삶의 조건이 다른 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심층의 네그르’를 출현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추상화된 생명으로서, 관리 가능하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근대 휴머니즘의 인간, 동물, 기계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삶의 광범위한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낸다.⁶ 나카자와 신이치 또한 일본에서 사물과 사건의 총체를 뜻하는 ‘모노’가 점차 바이오 경제 속에서 이윤을 낳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질적 과정으로 환원되는 ‘모노’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든 목적성을 갖지 않고 증식하는 ‘모노와의 동맹’을 통해 유물론을 새롭게 정초할 것을 제안한다(신이치, 2025[2009]).

³ 현재의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습관, 가치체계, 신념을 뜻하는 ‘마음의 습속’ 개념(김성경, 2018)이나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 개념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보려 한다.

⁴ 마르크스의 물신 숭배 논의와 램케의 ‘사물들의 통치’ 또는 랭턴 위너의 ‘자율적 테크놀로지’ 참고 예정

⁵ 식물육종과 종자산업이 어떻게 자본 축적에 이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켄 클로펜버그 2세, 농업생명공학의 정치경제, 2007 참고 예정

⁶ 다만, 이때의 애니미즘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필리프 데스콜라 등 참고 예정.

2. 선행연구 검토

스마트팜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회과학 연구는 드문데, 그마저도 학술대회 발표문에 그친다. 먼저, 박선희(2024)는 스마트팜 농민의 외부 의존성과 자율성을 분석하는데, 주로 스마트팜 기술이 농민의 노동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농민이 그 안에서 갖는 특수성에 대해 살핀다. 그는 스마트팜 기술이 기업의 ‘과학적 관리’ 규정 앞에서 농민의 기존 농업 지식이 무용화되며, 점점 외부 행위자에 의존하게 되는 주체성의 상실을 말하고 있다. 또한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여성 농민, 이주노동자들은 스마트팜에 대해 접근성이 낮으며, 스마트팜의 자동화와 기계화 영역을 벗어난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자율성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실천과 전적인 의존으로부터의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나맹진(2025)의 연구는 보다 이 연구의 방향성과 밀접한데, 그는 논산의 딸기 시설농장에서 현장연구를 통해 ‘그린하우스의 통치성’과 연루된 농업인들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충돌’과 ‘윤리적 딜레마’를 포착한다. 그의 연구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딜레마에 직면할 때 정면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우회’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팜 농업인들에게 벼처럼 스마트팜에서 키울 수 없는 노지 작물들은 관심사 밖이 되어 벼농사를 중심으로 축적된 압박과 저항, 운동의 역사가 잊혀지고 단절이 형성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무력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농민들에게 벼를 재배하던 들판은 ‘유령’처럼 지속적으로 출몰하게 된다. 나맹진은 환경성 장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농민 주체의 대응을 유효하게 조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연구는 이 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 스마트 농업 기술과 함께하는 농민에게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피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⁷

참고문헌

논문

- 박선희, 2024, 스마트팜 농민의 외부 의존성과 자율성: 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24년 전기사회학대회.
나맹진, 2025, 그린하우스의 역설과 우회의 윤리: 논산시 딸기산업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남윤철, 2026,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시설현황과 배치계획.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8(2), 9-16.
정학균, 임영아, 이혜진, 김창길, 2016, 기후스마트농업의 실태진단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행본

- 나카자와 신이치(구혜원 역), 2025[2009], 녹색 자본론, 북드라망.
멜린다 쿠퍼(안성우 역), 2016[2008], 잉여로서의 생명, 갈무리.
아실 음베크(김은주, 강서진 역), 2025[2018], 죽음정치, 동녘.
조르주 바타유(최정우 역), 2022[1976], 저주받은 몫, 문학동네.

⁷ 나맹진의 연구는 “미래와 자유의 역설: 한국 귀농자와 딸기밭의 민족지”이라는 이름의 연구과제로 현재 진행 중이며, 가장 최근에는 2026년 5월에 일본문화인류학회에서 구두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맹진 연구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